

어머니 우울성향과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의 아동생활능력에 대한 설명력*

The Explanation of Children's Competencies with Mothers'
Depression and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s' Behavior*

성덕대학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박 세 정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박 인 전
수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수 최 영 희

Dept. of Social Welfare, Sungduk College

Lecturer : Park, Se Jeong

Dept. of Child Studies, Yeungnam University

Associate Prof. : Park, In Jeo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uwon University

Associate Prof. : Choi, Young 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mothers' depression and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s' behavior on children's competencies. The subjects were 729 mothers and their children with grade 5 and 6 in the five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T city. Data were analysed by frequency, percentile,

* 이 논문은 1999년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mean, standard deviation, one-way ANOVA, scheff 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levels of mothers' depression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parents' educational level, fathers' occupation, and the average monthly house income. The degree of children's positive perception of parents' behavior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parents' educational level and average monthly house income. And the degree of children's competencies was different according to mother's age, parents' educational level, father's occupation and average monthly house income. Mother's depression affected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parents' behavior, suggesting that the lower the degree of mother's depression is, the more positively children tend to perceive parents' behavior.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affected the whole areas of children's competencies was the children's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mothers' behavior, and the next important factor was mothers' depression.

주제어(Key Words): 아동생활능력(children's competencies)

I. 서론

부모는 아동들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위치에 있으며, 자녀가 최초로 갖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다.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경험을 확장하고 발달시켜 나간다. 다시 말해, 부모는 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중요한 환경으로서, 아동은 부모를 통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므로, 부모의 성격과 정서 상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표현과 양육 상태를 결정하게 되고 부모의 요구 경향과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untsinger, Jose, & Larson, 1998). 따라서 부모 행동은 부모의 특성, 아동의 특성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가 진행되는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양육태도나 행동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는 부정적 정서요인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있어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부모의 부정적 정서 요인으로 우울증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우울증세나 우울증 장애는 부모의 양육과 관련이 있었다. 우울증 어머니와 아이간의 상호작용(Bettes, 1988; Cohn, Matias, Tronick, Connell, & Lyons-Ruth, 1986)이라든가 우울증 어머니의 양육의 질을 연구 한 결과(Colletta, 1983; Cmic, & Greenberg, 1985; Tronick & Field, 1986)에 의하면,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몰입되어 있

지 않고 자기 자신에 몰입해 있는 우울증세는 아동의 요구에 따뜻하고 민감하게 대하는 부모의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우울증 어머니의 경우 부모역할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었으며(Burbach & Borduin, 1986), 우울증 부모 중 68%가 부모역할에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우울한 어머니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은 자녀들에게 민감하지 못한 정서적 반응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Cummings와 Davies(199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민감하지 못한 정서적 반응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 문제와 연결되며, 아동은 철회, 불안, 수동성과 같은 내재화된 장애 및 공격성, 행동화와 같은 외현화 장애를 발전시키게 됨을 밝히고 있고,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의 심리적인 부적응에 따른 불건강한 양육패턴이 아동의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아동이 바람직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형성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의 정신적 건강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및 능력과 연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중심의 조기교육 열풍,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도덕 및 인성교육의 부재, 부모의 교육철학과 행동의 불일치, 진정한 부모-자녀 관계의 실종 등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김지신, 1986). 게다가 어머니의 우울이 그들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정신 병리 발달에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중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우울과 어머니의 행동과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우울과 부모의 행동, 그리고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능력간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계를 다룬 연구는 보기 드문 실정이며, 사회적 능력이나 정서 등의 하위변인으로 국한되어 제한된 관계형태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특성만이 비교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아동의 생활능력 혹은 유능감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취학전 아동의 연령에 한정되어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각 하위능력보다는 광범위한 생활능력 전체와의 관계를 다루어 봄으로써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아동의 생활능력과의 통합적인 관계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이 아동발달의 여러 측면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Baumrind(1967, 1973)는 따뜻하고 온정적이며 성숙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권위적인(authoritative) 부모는 지나치게 통제적인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부모보다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아동을 양육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격적, 자기 유능감 지각 등 제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Baumrind, 1978; Becker, 1964; Dielman et al., 1972; Harter, 1988; Rohner, 1980; Paul, 1992).

특히 아동이 지각한 부모행동과 아동의 생활능력의 각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공인숙, 1989; Schaefer, 1965; Saavedra, 1980)을 살펴 보면, 아동이 부모를 온정적이면서도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인지적, 사회적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이 가장 높았고, 전반적인 자아가치에 대한 자기지각도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어,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각한 바가 자녀의 여러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임선화(1987)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지향적, 합리적이라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며 생활할 때,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이 되며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였다. 몇몇 연구들(김경화, 1989; 김인경, 윤진, 1988; 노성향, 1994; 정명희, 1987)에서는 부모와 개방적인 기능적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적게 느끼고, 자아중심성 및 문제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행동이 아동 발달의 여러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부모양육 행동 및 태도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가족간의 상호작용이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만 의존해 왔다.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며(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Tein, Roosa, & Michaels, 1994), 아동의 지각이 아동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임정하, 정옥분(1997)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행동을 아동의 지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능력 수준을 어느 정도로 지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병립(1987)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능력이나 흥미와는 무관하게 여러 가지 특기 교육을 시키거나, 상당한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자녀와 부모와의 결합 형태와 수준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때, 어머니와 아버지 중 어느 한 편도 등한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부모 모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모들의 행동이 아동에게 어떻게 지각되고 있으며, 그러한 부모 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이 아동의 생활능력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우울성향과 부모

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이 아동의 생활능력을 설명하는 정도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 우울성향 및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과 아동의 생활능력은 가족배경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 우울성향은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

셋째, 어머니 우울성향과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은 아동의 생활능력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성향 및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과 아동의 생활능력과 관계울 알아 보기 위하여 질문지의 수준을 고려하여, T시에 소재하는 5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및 그 어머니로서 총 729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학생이 50.5%, 여학생이 49.5%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5학년이 53.8%로 46.2%인 6학년 보다 다소 많았으며, 출생 순위는 맏이(46.4%), 중간/막내(43.5%), 외동(10.1%)의 순이었다.

다음 가족배경 특성을 살펴 보면, 모연령의 경우 37~42세가 68.6%로 가장 많았고, 36세 이하(21.5%), 43세~48세(9.3%), 49세 이상(0.6%)의 순이었으며, 부모 학력의 경우, 아버지는 44.4%, 어머니는 66.9%로 고졸 이하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월평균 수입은 160만원~250만원 미만인 38.8%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160만원(25.8%), 250만원 이상(19.6%), 100만원 미만(15.8%)의 순이었다. 또한 부직업의 경우, 아버지는 서비스직/자영업(29.4%), 전문직(26.6%), 사무직(25.4%), 노무직/생산직(12.5%), 무직(6.1%)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서는 전업주부가 63%이고 취업 모는 37%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어머니 우울성향

우울은 어머니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으로 무기력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Beck(1961)의 BDI(Back Depression Inventory)로 어머니의 우울성향을 조사하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우울성향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86으로 만족한 수준이었다. 어머니 우울성향의 전체적인 경향은 <표 1>과 같다.

<표 1> 어머니 우울성향의 빈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어머니 우울 수준	N	%
정상상태(0~9점)	476	65.3
경한 우울상태(10~15점)	159	21.8
중한 우울상태(16~23점)	66	9.1
심한 우울상태(24~63점)	28	3.8
	평균(M)	표준편차(SD)
어머니 우울 전체	8.39	6.60

2)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

부모행동(parent behavior)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행동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이는 Hazzard, Christensen 그리고 Margolian(1983)에 의해 개발된 PPI(Parent Perception Inventory)로 측정하였다. PPI는 아동이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지각과 부정적인 지각을 측정하는 것으로, 9개의 긍정적 부모역할 지각(긍정적인 강화, 안락함, 대화시간, 의사결정의 참여, 공유시간, 긍정적 측정, 독립성의 인정, 조력과 비언어적 감정)과 9개의 부정적 지각 항목(권리의 제거, 비난, 명령, 신체적 체벌, 조소, 위협, 중단, 잔소리와 무시)으로 되어 있다. 긍정적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높으며, 부정적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행동 지각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74로서 만족한 만 하였다. 아동지각의 경향은 <표 2>와 같다.

〈표 2〉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영역	평균(M)	표준편차(SD)	표준화된 점수(Z-score)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23.72	6.87	2.64
모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	10.68	4.86	1.19
부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23.63	6.14	2.63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	8.76	4.70	0.97

3) 아동의 생활능력

이병림(1987)은 생활능력을 환경에 부딪쳐 살아 가면서 어떠한 목적을 만족스럽게 성취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전반적인 능력을, 아동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필요한 생활 속 전반의 능력이라 정의하고, 이병림(1987)이 표기한 "생활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신체 운동 능력, 책임감, 사회적 능력, 예술 능력, 인성 등 여섯 가지의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이병림(1987)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96으로 매우 높은 정도였다. 아동의 생활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표 3〉 아동의 생활능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영역	평균(M)	표준편차(SD)
신체 및 운동능력	3.44	0.57
지적 능력	3.40	0.65
책임수행 능력	3.78	0.69
사회적 능력	3.67	0.55
예술적 능력	3.43	0.65
인성	3.69	0.53
생활능력 전체	3.44	0.48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예비조사는 99년 5월 중순에 38명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척도 내용의 문화적 차이와 문항의 내용이 불분명하게 전달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설문지의 일부 문항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99년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T시 소재의 5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000부를 배부하여 82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부실 기재된 경우와 아동과 모의 설문지가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시킨 다음 최종 729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One-way ANOVA와 Scheff test, 회귀분석 등으로 통계처리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 우울성향 및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과 아동의 생활능력

어머니 우울성향 및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과 아동의 생활능력은 가족배경 변인(모 연령, 월평균 수입, 부학력, 모학력, 부직업, 모직업 유무)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1)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 우울성향

어머니 우울성향은 가족배경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및 하위 영역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 F값을 산출하고 Scheff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 우울성향은 모연령과 모직업 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학력($P<.01$), 모학력($P<.001$), 부직업($P<.001$), 월평균 수입($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

〈표 4〉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 우울성향

변 인	구 분	어머니 우울성향		
		M(SD)	F값	Scheff
모연령	36세 이하	8.52(5.91)	0.79	
	37세~42세	8.27(6.55)		
	43세~48세	9.16(8.41)		
	49세 이상	4.75(3.69)		
부학력	고졸이하	9.30(7.19)	6.69**	a
	전문대졸	8.58(5.96)		b
	대졸이상	7.41(5.99)		
모학력	고졸이하	8.98(6.86)	8.96***	a
	전문대졸	8.56(6.81)		a
	대졸이상	6.45(5.18)		b
부직업	무직	13.49(8.98)	12.01***	a
	노무직/생산직	9.75(7.31)		b
	서비스직/자영업	8.86(6.83)		b
	사무직	6.83(5.10)		c
	전문직	7.55(5.88)		c
모직업 유무	전업주부	8.53(6.49)	0.52	
	취업 모	8.16(6.79)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12.06(8.39)	20.33***	a
	100~160만원 미만	9.10(6.58)		b
	160~250만원 미만	7.41(5.77)		c
	250만원 이상	6.43(5.15)		c

P<.01 *P<.001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학력에서는 대졸이상일 때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직업에 있어서, 무직인 경우가 어머니 우울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수입에서는 100만원 미만에서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2)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이 가족배경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행동 중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의 경우, 먼저 부학력은 전문대졸이나 대졸이상인 경우

에, 모학력에서는 전문대졸일 때 아동은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월평균 수입에서는 250만원 이상의 월평균 수입인 가족의 아동이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의 경우, 먼저 부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에 아동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부직업에서는 전문적인 경우에 아동의 부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수입에서는 수입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의 경우는 모직업 유무(P<.05)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취업모의 자녀가 전업주부의 자녀보다 아버지의 행

<표 5>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

변인	구분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모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			부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		
		M(SD)	F값	S	M(SD)	F값	S	M(SD)	F값	S	M(SD)	F값	S
모연령	36세 이하	23.02(5.70)	2.57		20.28(4.84)	1.57		22.90(6.91)	1.51		9.43(5.05)	2.51	
	37세 ~42세	23.78(6.25)			19.54(4.75)			23.80(6.79)			8.71(4.48)		
	43세 ~48세	25.10(6.11)			19.16(5.44)			23.66(7.33)			7.66(5.35)		
	49세 이상	19.25(5.68)			22.25(7.89)			29.00(6.27)			7.00(2.71)		
부학력	고졸이하	22.90(6.18)	5.36**	a	20.12(5.24)	0.23		22.78(6.90)	5.18**	a	9.15(5.18)	2.52	
	전문대졸	24.16(5.26)			19.74(4.70)			23.55(7.01)			8.91(4.74)		
	대졸이상	24.44(6.24)			20.16(5.39)			24.51(6.72)			8.32(4.11)		
모학력	고졸이하	23.26(6.05)	4.71**	a	19.95(5.18)	1.04		23.40(6.76)	1.14		8.88(4.90)	0.52	
	전문대졸	25.19(5.68)			20.85(5.27)			24.57(7.65)			8.60(4.22)		
	대졸이상	24.36(6.50)			20.11(5.40)			23.83(6.77)			8.46(4.33)		
부직업	무직	22.00(7.92)	1.87		19.53(5.63)	1.04		21.18(6.95)	3.62**	a	9.07(5.52)	1.10	
	노무직/생산직	22.71(6.14)			20.20(4.82)			21.87(7.50)			9.67(5.46)		
	서비스직/자영업	24.12(5.70)			19.18(4.80)			24.04(6.83)			8.59(4.71)		
	사무직	23.82(6.24)			20.01(4.74)			24.04(6.73)			8.53(4.40)		
	전문직	24.05(6.00)			19.71(4.87)			24.16(6.55)			8.66(4.37)		
모직업 유무	전업주부	23.23(6.14)	0.01		19.61(4.75)	0.28		23.74(6.76)	0.32		8.46(4.36)	4.96*	
	취업 모	23.70(6.16)			19.80(5.06)			23.44(7.07)			9.26(5.20)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22.18(6.98)	3.82**	a	19.63(5.30)	0.60		21.76(7.07)	3.82*	a	8.90(4.79)	0.97	
	100~160만원 미만	23.72(5.85)			19.53(4.62)			23.53(7.23)			8.64(4.63)		
	160~250만원 미만	23.82(5.81)			19.96(4.79)			24.11(6.46)			9.04(4.77)		
	250만원 이상	24.76(6.27)			19.36(4.97)			24.30(6.83)			8.24(4.59)		

*P<.05 **P<.01

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아동의 생활능력

아동의 생활능력은 가족배경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생활능력 전체는 모연령(P<.05), 부학력(P<.01), 모학력(P<.01), 부직업(P<.001), 월평균 수입(P<.001)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49세 이상인 경우에, 부모학력은 모두 대졸이상일 때, 또한 부직업의 경우 아버지가 서비스직이나 자영업, 사무직, 전문직일 때, 그리고 월평균 수입에서는 250만원 이상일 때 아동의 생활능력 전체가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하위 영역을 보다 자세

히 살펴 보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생활능력 중 지적 능력(P<.01), 책임수행 능력(P<.05), 예술적 능력(P<.05), 인성(P<.05)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지적 능력과 인성의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36세 이하보다 49세 이상일 때 그 능력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예술적 능력에서는 49세 이상일 때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능에의 관심과 소질이 많고 미술적 능력과 음악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지적 능력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에 어머니가 아동의 지적 능력을 더 우수하게 평가하였으며, 예술적 능력과 인성에서 보면, 아버지가 고졸 이하일 때보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의 아동이 예술적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감이 있으며 안정되고 침착하며 대범한 성격적 특성을 가지는

〈표 6〉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아동의 생활능력

번 인	구 분	신체 및 운동 능력		지적능력		책임 수행 능력		사회적 능력		예술적 능력		인성		생활능력 전체			
		M(SD)	F값	S	M(SD)	F값	S	M(SD)	F값	S	M(SD)	F값	S	M(SD)	F값	S	
모 연령	36세 이하	3.44(0.58)		a	3.27(0.63)		a	3.25(0.69)		3.65(0.52)		a	3.61(0.53)		a	3.39(0.47)	
	37세 ~42세	3.44(0.57)	0.02	4.37**	3.42(0.65)		3.41(0.68)		3.66(0.55)		a	3.70(0.53)	2.80*		a	3.45(0.48)	2.25*
	43세 ~48세	3.45(0.61)			3.53(0.63)		3.42(0.71)		3.73(0.61)	0.87		3.31(0.66)			b	3.47(0.47)	
	49세 이상	3.40(0.61)		b	4.04(0.66)		3.96(0.53)		4.00(0.62)		b	4.21(1.03)			b	3.92(0.63)	
부 학력	고졸이하	3.40(0.55)		a	3.29(0.61)		a	3.29(0.70)		3.62(0.56)		a	3.62(0.52)		a	3.37(0.48)	
	전문대졸	3.50(0.55)	1.31	12.07***	3.31(0.65)		a	3.43(0.66)	2.65		3.41(0.65)	6.74**			a	3.45(0.46)	7.59**
	대졸이상	3.46(0.60)		b	3.53(0.67)		b	3.46(0.68)		3.71(0.55)		b	3.76(0.53)		b	3.51(0.48)	
모 학력	고졸이하	3.42(0.57)	1.01		3.33(0.64)		a	3.34(0.69)		3.65(0.55)			3.66(0.53)			3.41(0.48)	
	전문대졸	3.48(0.56)			3.39(0.62)	11.05***	a	3.37(0.68)	2.60	3.68(0.45)	1.01		3.71(0.46)	2.36		3.45(0.40)	4.74**
	대졸이상	3.48(0.58)		b	3.61(0.68)		b	3.49(0.69)		3.72(0.59)			3.77(0.56)			3.54(0.50)	
부 직업	무직	3.18(0.61)		a	3.14(0.53)		a	3.21(0.56)		3.49(0.48)		a	3.52(0.43)		a	3.24(0.38)	
	노무직/생산직	3.25(0.55)		a	3.15(0.64)		a	3.20(0.77)		3.44(0.62)		a	3.45(0.56)		a	3.24(0.52)	
	서비스직/자영업	3.46(0.57)	6.51***	8.63***	3.38(0.62)		b	3.37(0.67)	3.21*	3.72(0.50)	7.03***	b	3.75(0.48)	8.41***	b	3.45(0.44)	9.13***
	사무직	3.47(0.56)		b	3.43(0.67)		b	3.43(0.69)		3.68(0.56)		c	3.68(0.57)		c	3.46(0.50)	
모 직업	전문직	3.54(0.57)		c	3.57(0.65)		b	3.46(0.67)		3.75(0.54)		c	3.79(0.51)		c	3.55(0.47)	
	전문직	3.40(0.57)	6.39*	1.90	3.37(0.66)			3.36(0.68)	0.86	3.64(0.55)	3.05		3.67(0.51)	1.17		3.42(0.47)	3.57
월 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3.36(0.55)		a	3.23(0.67)		a	3.31(0.68)		3.56(0.58)		a	3.56(0.55)		a	3.35(0.49)	
	100~160만원 미만	3.37(0.57)	3.16*	12.81***	3.30(0.59)		a	3.28(0.66)		3.59(0.54)		a	3.61(0.53)	10.08***	a	3.36(0.47)	9.11***
	160~250만원 미만	3.46(0.59)		b	3.40(0.66)		b	3.39(0.71)	4.49**	3.69(0.53)	5.91**		3.70(0.50)		a	3.45(0.47)	
	250만원 이상	3.54(0.55)		b	3.67(0.63)		b	3.54(0.67)		3.81(0.55)		b	3.88(0.53)		b	3.60(0.47)	

* S = Scheffe(서로 다른 문항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 *P<.05 **P<.01 ***P<.001

것으로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생활능력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어머니들은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생활능력의 차이는 먼저 지적 능력에서는 어머니가 대졸이상인 경우에 아동의 기억력이 정확하고, 학습력이 빠르며 명확한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한 지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생활능력의 모든 하위 영역, 즉 신체 및 운동능력 ($P<.001$), 지적 능력($P<.001$), 책임수행 능력($P<.05$), 사회적 능력($P<.001$), 예술적 능력($P<.01$), 인성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직업 유무에 따른 아동의 생활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월평균 수입에 있어서는 생활능력의 모든 하위 영역인 신체 및 운동 능력($p<.001$), 지적 능력($p<.001$), 책임수행 능력 ($p<.01$), 사회적 능력($p<.01$), 예술적 능력($p<.05$), 인성($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 아동의 생활능력도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아동의 생활능력도 비교적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어머니 우울성향이 부모 행동에 대한 아동 지각을 설명하는 정도

어머니 우울성향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행동의 각 하위 영역을 어느 정도 예언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beta=-.095$)과 부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beta=-.093$)에서만 어머니 우울성향이 유의미한($P<.05$)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은 부모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0.8%, 부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0.7%로, 그 설명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 우울성향과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이 아동의 생활능력을 설명하는 정도

어머니 우울성향과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이 아동의 생활능력에 미치는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즉 어머니 우울성향,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모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 부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아동의 생활능력의 각 하위 영역과 생활능력 전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생활능력 전체에 대해 보다 많은 설명력을 지닌 예언 변인은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beta=.216$), 어머니 우울성향($\beta=-.241$),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beta=-.14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4.2%이었다. 즉 아동의 생활능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어머니 우울성향이 가장 높은 예언 변인이 되었으며, 부 행동에 대한 긍정적

<표 7> 어머니 우울성향이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하위영역	B	β	R^2	Adjusted R^2	F 값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088	-.095*	.009	.008	6.565*
모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	.307	.051	.003	.001	1.921*
부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097	-.093*	.009	.007	6.394*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	.062	-.035	.001	.000	0.873*

* $P<.05$

〈표 8〉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어머니 우울성향과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의 다중회귀분석

하위영역	예언변인	B	β	R^2	Adjusted R^2	F 값
신체 및 운동능력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139	.124**	.068	.064	17.611***
	어머니 우울성향	-1.211	-.143***			
	부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106	.106*			
지적 능력	어머니 우울성향	-2.238	-.233***	.104	.100	28.013***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	-.244	-.147***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173	.136***			
책임수행 능력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	-.374	-.213***	.119	.116	32.781***
	어머니 우울성향	-2.054	-.202***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192	.048***			
사회적 능력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188	.175***	.138	.134	29.072***
	어머니 우울성향	-1.691	-.208***			
	부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107	.111**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	-.130	-.093*			
예술적 능력	어머니 우울성향	-1.598	-.167***	.053	.050	20.118***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182	.144***			
인 성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260	.251***	.127	.123	35.158***
	어머니 우울성향	-1.485	-.190***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	-.146	-.108**			
생활능력 전체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1.219	.216***	.142	.138	39.990***
	어머니 우울성향	-10.240	-.241***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	-1.044	-.142***			

* $P < .05$ ** $P < .01$ *** $P < .001$

지각과 부정적 지각도 아동의 생활능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주요한 예언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머니 우울성향과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부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그리고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었는데,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은 신체 및 운동 능력, 사회적 능력, 인성을 높이 설명하고 있으며, 지적 능력과 예술적 능력은 어머니 우울성향이, 책임수행 능력은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으로 높이 설명되고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 우울성향 및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이 아동의 생활능력을 설명하는 정도의 차

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 우울성향 및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과 아동의 생활능력을 살펴 보면, 먼저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 우울에서는 부학력, 모학력, 부직업,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어머니 우울성향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전반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 우울성향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머니의 학력이 어머니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지영(198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부의 직업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직업 유형 중 특히 사무직이나 전문직일 때 어머니 우울성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수입에서는 가정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 우울성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직

업이 단순직보다는 사무직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위수준일수록 어머니의 안정된 정서상태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만하다고 밝힌 김인희(199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모학력,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학력이 어머니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지영(1988)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월평균 수입에서는 가정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 우울성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행동 지각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에서만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의 경우 부의 학력이 전문대졸·대졸 이상인, 그리고 모학력이 전문대졸이 고졸 이하보다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각이 높았으며, 월평균 수입에서는 250만원 이상이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부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에서는 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부직업이 전문직인 경우가, 그리고 월평균 수입이 1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히 일반적으로 교육을 보다 많이 받은 어머니들이 아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Alvarez(198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부모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이 부모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강완숙(1983)의 연구, 직업이 부모가 자녀를 지각하는 방식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Crouter(198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배경 변인에 따른 아동의 생활능력 전체에서는 모직업 유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인 즉 모연령, 부학력, 모학력, 부직업, 월평균 수입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의 생활능력의 각 하위 영역별로 세밀히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지적 능력, 책임수행 능력, 예술적 능력, 인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아동의 생활능력이 다소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학

력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아동의 생활능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라고 보았다. 특히 지적 능력의 경우 다른 능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사무직 및 전문직이고 전문대졸 이상일 때 지적 능력이 더 높게 평가된다는 노현미(1998)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위가 아동의 생활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적 안정성이 높다는 강경일(1980)의 연구 결과와 일부 유사하며,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이 높다고 한 이영순(1988)의 연구와 거의 일치하였다.

부의 직업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이나 전문직일 때 신체 및 운동 능력, 예술적 능력이 어머니에 의해 보다 우수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의 관계를 연구한 노현미(1998)에 의하면 부모가 사무직 및 전문직일 때 유아의 지적 능력, 책임수행 능력, 예술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생활능력의 모든 하위 영역인 신체 및 운동 능력, 지적 능력, 책임수행 능력, 사회적 능력, 예술적 능력, 인성에서 유의미하였는데, 월평균 수입 역시 높을수록 아동의 생활능력도 어머니에 의해 대체로 높게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월평균 수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생활능력이 우수하다는 노현미(199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구순완(1991)의 연구와도 그 결과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한 윤정진(1997)의 연구 및 심리과정적 가정환경이 유능감 지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박정희(1995)의 연구,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부모의 학력, 부직업,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 박인전(1998)의 연구와도 그 결과들이 대체로 일치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 및 가족배경 특성에 따른 유아의 생활능력에서 부직업, 모직업, 부학력, 모학력, 월평균 수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힌 노현미, 박인진, 박영애(199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국 아동의 생활능력은 가족배경 변인 중 사회경제적인 요인 즉, 부직업, 부모학력, 월평균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어머니 우울성향이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을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아동지각한 부모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은 부모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증이 자녀양육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Cutrona & Troutman, 1985; Donovan & Leavitt, 1989)의 결과에서 일부 지지된다.

셋째, 어머니 우울성향과 부모행동에 대한 아동지각이 아동의 생활능력을 설명하는 정도의 경우, 아동의 생활능력 전체에 대해 보다 많은 설명력을 지닌 예언 변인은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어머니 우울성향,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4.2%로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 다 같이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 어머니 우울성향이 그 예언변인으로 나타나 아동의 생활능력은 어머니 우울성향과 어머니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책임수행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적 능력과 예술적 능력에서는 어머니 우울성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의 생활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 우울성향에 따라 아동의 생활능력의 각 하위 요인과 상관이 있다는 여러 연구들(Kokes, Harder, Fisher, & Strauss, 1980)과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높은 경우에 그 자녀들의 우울경향, 불안경향이 매우 높고 안정성 및 사회성이 매우 낮았다고 밝힌 김지영(198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생활능력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모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우울성향, 부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

각, 부 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각도 주요한 예언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각이 아동의 생활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높거나 부정적인 행동지각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가 어머니 자신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Mitchell(199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김지신(1986)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애정·합리적 지도에 대한 아동지각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통솔력 및 도덕적 행동점수가 높음을 밝히고 있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생활능력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제한으로써 연구대상이 특정지역에 한정됨에 따라 결과 전체를 일반화시키기에 다소 무리가 있고 사회계층별로 구분하여 연구를 했다면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척도에 대한 제한으로서 어머니 우울척도의 경우, 문항의 내용들의 표현이 다소 직선적이어서 응답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국외의 척도여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절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많은 검증을 거친 도구들을 이용한 연구가 향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객관적인 평정을 위해 아동의 생활능력에 관한 척도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교사의 평가도 측정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올바른 부모-자녀 관계와 전반적인 생활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종단적이고 발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경일(1980).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의 학업

- 성적 및 성격 특성.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완숙(198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한국아동학회지*, 10(1), 4-78.
- 구순완(1991). 인성과 가정환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경, 윤진(1988).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에 관한 연구-인지발달,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7(1), 54-62.
- 김인희(1994). 어머니-자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성격특성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신(1986). 어머니 훈육방법과 아동의 감정입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1989). 어머니의 우울상향과 그 자녀의 정서적 특성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향(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미(1998).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미, 박인전, 박영애(199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4(2), 191-215.
- 문미옥, 이혜상(1995). *바른 부모교육 프로그램*. 서울: 서원, 195-199.
- 박인전(1998). 아동기 부모-자녀의 결합형태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3) 2, 107-131.
- 박정희(1995).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및 양육태도와 유능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4), 265-278.
- 윤정진(1997).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능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림(1987).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순(1988).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 김경희(1989). *부모 교육*. 서울: 양서원, 304-309.
- 임선화(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하, 정옥분(1997).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8(1), 163-175.
- 정명희(198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varez, W. F. (1985). The meaning of maternal employment for mothers and their perceptions of their three-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350-360.
- Baumrind, D. (1967). Socialization Practices associated with Dimensions of Competence in Preschool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38, 291-327.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7, 3-46.
- Baumrind, D. (197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and Society*, 9(3), 239-276.
- Beck, A. T.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ecker, G. S. (1964). Consequencer of Different Kinds or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 Development Research ed.*, 1, 174-175.
- Bettes, B. A. (198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s; Temporal and intonational features. *Child Development*, 59, 1059-1096.
- Burbach, D. J., & Borduin, C. H. (1986). Parent-Child relations and the ethology of depression; A review of method and finding. *Child Psychol. Rev.* 6, 133-13.
- Cohn, J. F., Matias, R., Tronick, E. Z., Connell, D., & Lyons-Ruth, K. (1986). Face-to face interactions of depressed mothers and their infant. In E. Z. Tromck & T. Field(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Malernal depression and infant disturbance*, 34, 31-45.
- Colletta, N. D. (1983). At risk for depression: A study of young Mothe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2, 301-31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85, April). Parenting daily hassles; *Relationships among minor stresses, family functioning, and child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oronto.
- Crouter, A. C. (1984). Participative work as an influence on human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5, 71-90.
- Cummings, E. M., & Davies, P. T. (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5, 73-112.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5).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 (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05-715.
- Dielman, T. E., Cattell, R. B., & Patrick, R. (1972). Child-rearing antecedents of early school child personality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3), 431-435.
- Donovan, W. L., & Leavitt, L. A. (1989). Maternal self-efficacy and infant attachment; Integrating physiology, percep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0, 460-472.
- Huntsinger, C. S., Jose, P. E., & Larson, S. L. (1998). Do parent practices to encourage academic competence influence the social adjustment of young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747-756.
- Harter, S.(1988).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 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J. Kolligian and R. Sternberg (Eds.), *Perception of competence and incompetence across the life-spa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azzard, A., & Christensen, A., & Margolian, G. (1983).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1, 49-60.
- Jeffrey, P., & Tiffany, F. (1993). Facial expressively in infants of depress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986.
- Kokes, R. F., Harder, D. W., Fisher, L., & Strauss, J. S. (1980). Child competence and psychiatric risk.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8, 348-352.
- Mitchell, J. P.(1999). Link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associations with maternal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28, 197.
- Paul, S. G. (1992).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self-perceptions of their compet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Raskin, A., Boothe, H. H., Reatig, N. H., Schulterbrandt, J. G., & Odle, D. (1971). Factor

- analysis of normal and depressed Patients memories of Parental behavior. *Psychological Report*, 29, 871-879.
- Rohner, R. P. (1980). Worldwide test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1-21.
- Saavedra, J. M. (1980).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control on the self evaluation of puertorican adolescent males.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41-54.
- Schaefer, F.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Tein, J. U., Roosa, M. W., & Michaels, M. (1994). Agreement between parent and child reports on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41-355.
- Tronick, E. Z., & Field, T. (Eds.)(1986).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Maternal Depression and Infant Disturbance*(No. 34). San Francisco: Jossey-Bass.